

박원호 목사의
12단계 성경공부 _ 8단계

성경과 삶의 과제

01	이제는 삶입니다!	2
02	예수의 놀라운 복음	6
03	산상수훈과 성도의 삶 1	15
04	산상수훈과 성도의 삶 2	21
05	청지기의 삶	24
06	돈과 청지기 신앙	30



첫 번째 시간

이제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3,14,18

이번 8과에서는 기독교인의 삶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기독교인의 삶은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어떻게 같은지를 다룰 것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삶의 종교입니다. 신앙은 삶으로 고백되어야 하며 삶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교리들이 중요하지만 교리 역시도 삶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무리 교리가 올바르게 정립된다 할지라도 삶으로 고백되거나 증거되지 못한다면 온전한 교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른 이론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도 가져야 합니다.

이번 과에서는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 세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기독교 신앙은 삶으로 고백되어야 합니까? 왜 고백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루고, 두 번째는 ‘산상수훈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라는 질문을 다루고, 세 번째는 ‘기독교 신앙의 고백으로 청지기의 삶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기독교 신앙과 삶의 관계입니다. 왜 삶이 따라야 합니까? 본회퍼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용서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편이라고 기뻐하지만 예수의 길은 따르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삶의 방식에 있어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의 가르침이 진리냐? 믿을 수 있느냐?’ 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르침이 현실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이냐?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느냐?’ 나아가서는, ‘당신의 달라진 삶을 내게 보여줄 수 있느냐?’ 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예수 부활하셨다!” 고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교리나 성경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삶이 교리나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합니까?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 올바르게 아는 것이 삶을 위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은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 용서와 죽고 난 다음의 천당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훗날 천당에 가면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틀에 매여 있습니다. 이 틀에 따르면, 이 땅을 살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의 모습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자 됨이나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꾸어야 할 첫 번째 사실입니다.

죄를 용서 받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체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그저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로만, 즉, 죄가 없는 존재로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만물을 돌보는 책임도 맡기셨습니다. 바른 구원은 이러한 과정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영생(eternal life)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을 죽은 다음의 삶으로 생각합니다. 죽고 나서 하늘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말은 전적인 새로운 삶을 의미하며 특별한 삶의 질을 말함이지 지금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물론 이 삶에는 미래의 차원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작되는 삶이며 여기에서 시작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신 복음에 따른 삶을 말합니다. 이 삶의 능력은 성령이며 예수를 닮아가는 일평생의 여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누구를 따라야 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가져야 하느냐?





두 번째 시간

예수의 놀라운 복음

마가복음 1:1-15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물론 이야기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을 다스리는 온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스캇 펙(Scott Peck)은 “아직도 가야할 길(The Road Less Travelled)”이란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세 가지 모습 내지는 습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모습을 가질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삶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것은 삶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삶은 더욱 그러합니다. 삶이 어려움을 알고 이를 대비하는 삶을 산다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다보면 작은 어려움에도 좌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모습입니다. 어릴 적에 늘 들었던 말입니다. “숙제하고 놀아라.” 숙제를 하고 놀면 숙제도 제대로 하지만 노는 것도 제대로 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놀고 나서 숙제를 하려면 숙제를 못할 뿐 아니라 노는 것도 제대로 놀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균형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영역, 직장의 영역, 신앙의 영역, 취미의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등. 모두가 소중한 영역들입니다. 이러한 영역들의 균형을 잡는 것이 성공하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때로는 예상 못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전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단지 용서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로 새로운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새롭게 하는 복된 이야기란 뜻입니다. 이 말은 생명이 죄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마가복음 1:15)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그리고 실천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 인간의 문제가 출발점이 아니란 뜻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도로 시작하며 그 분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성경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일, 아브라함, 모세, 룖, 다윗, 예언자들과 하셨던 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이때를 위한 준비였음을 뜻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준비에 헌신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입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전적인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의 인격과 말씀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

기독교인의 삶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① 주님과 동역하는 친구가 되는 것
- ② 창조적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 ③ 남을 위한 삶
- ④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을 유지하는 터전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과 동역하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엔 죄 용서와 죽고 나서의 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동역자의 삶도 포함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세상 속에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분리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제자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죄인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인격과 사역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주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주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생명을 이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아울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따라와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에 깊이 잠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헌신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계약의 신실함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일평생 계속되는 겸손과 자기 점검의 삶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intellectual consent)가 아니라 예수를 신뢰함을 말하며 이는 모든 삶의 헌신입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신뢰함으로써 실제로 행동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

기독교인의 삶의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갖느냐가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깁슨 윈터(Gibson Winter)라는 기독교 윤리학자는 오늘날 사람들의 대표적인 가치를 말하면서 효과(efficiency)와 편리(convenience)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가치가 중심이 되면서 전통적인 가치들이 무너졌습니다. 도덕의 가치도, 공동체의 가치도, 생명의 가치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이용대상으로 대하며 얼마나 효과있느냐, 얼마나 편리하느냐가 주된 관심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궁극적인 가치를 잃었으며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연 또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연은 더 이상 생명의 터전이거나 삶의 동반자

가 아니라 인간이 이용할 그 무엇(object)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전통으로부터도 단절되었고 함께 할 공동체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집단과도 구별되며 이기주의와도 구별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몸의 지체를 이룹니다. 개인을 무시하고 전체만을 고집하는 집단이 아니며, 전체를 무시하고 개인을 고집하는 이기주의도 아닙니다. 몸과 같이 한 지체 한 지체가 소중하면서 동시에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서 누락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자신보다 더 높은 목적에 헌신합니다.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롬 14:17)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십자가를 지고서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성장은 결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자란 다 할지라도 그 성장은 결코 바른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룰 때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어릴 적에 아궁이의 불을 피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큰 가지를 사용하고 마지막엔 큰 등치를 사용합니다. 아무리 큰 등치라도 혼자 두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이는 교제할 대상도 없고, 함께 일할 대상도 없고, 함께 나눌 이야기도 없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선 마음이 필요하듯 한 성도가 자라기위해선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헌신과 사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톰 라이트(N. T. Wright)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메시아에게서 절정을 이루셨고 이제는 교회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가 바른 비전을 가지도록 힘써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에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선포해야 하며 그리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중심 기관입니다. 교회에 세상의 소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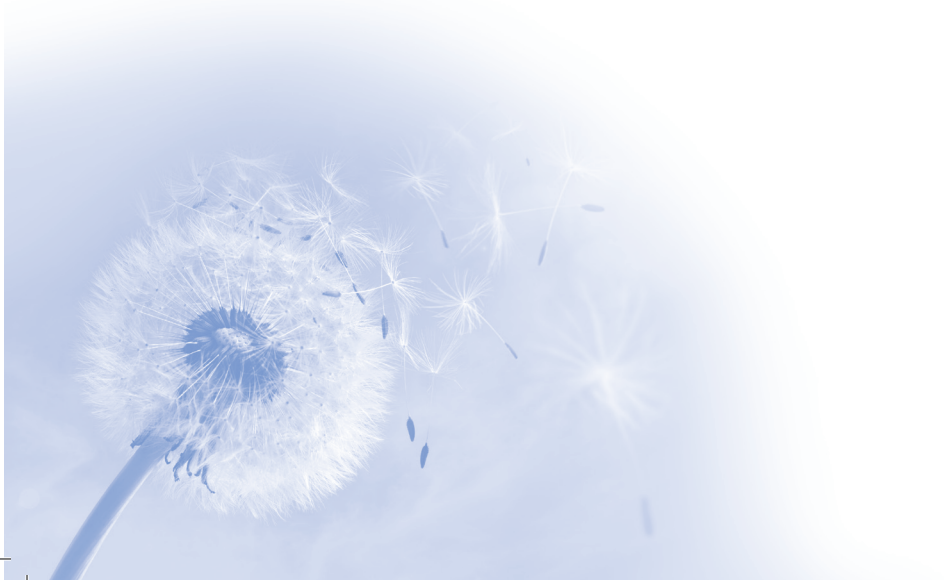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 사건, 목사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모 교회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나는 어느 교회의 부활절 행사에 참여하러 갑니다.”

“나는 어느 목사 설교를 들으러 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다스려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 시간

산상수훈과 성도의 삶 1

마태복음 5:1-12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마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기독교인의 삶과 산상수훈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 현장이자 삶의 대원칙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근본을 말해주는 말씀이면서 일평생 헌신해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 산상수훈에 대한 신학자들의 논의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산상수훈은 신학자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성 때문입니다. 과연 이 말씀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냐? 말씀 하나 하나가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씀들이며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현재가 아니라 먼 훗날 우리가 실천할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성도들 또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미래의 말씀이기에 크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이해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나 소망을 따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말씀이며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마 5:44)의 말씀은 우리의 윤리와 상식과는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성도에게 마땅히 실천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팔복의 첫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따르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면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며 이 땅을 살면서 지킬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네 가지 차원

산상 수훈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기독교 윤리에는 4가지 차원이 있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1차원의 윤리는 특별한 이유나 설명 없이도 받아들이는 차원이며 모두가 동의하는 차원입니다. 본능적인 차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은 나쁜 일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2차원은 규칙 수준(Rules level)입니다. 규칙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삶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교통 법규나 질서를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칙은 원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리 수준(Principle level)입니다. 이 수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같이 구체적인 규칙을 말하지 않고 대신 근본 정신을 말합니다. 규칙은 특별한 판단에 이유를 제공하고 원리는 규칙에 이유를 제공합니다. 규칙과 원리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되 원리를 알아야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기본적 확신의 차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차원으로 최후의 헌신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생명은 서로 형제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서문에서 이를 분명히 밝히고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출 20:2).

산상수훈의 구조

다음으로 우리는 산상수훈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단지 반대와 반대에 대한 완전으로 구성된 이중 구조가 아니라, 3중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 노하는 자마다 …… 제물을 내려두고 가서 화해하라 그리고서 제물을 바쳐라”

살인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대해, 주님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악순환을 지적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말로서 지속적으로 악순환에 빠져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라 그리고 제물을 바쳐라.

먼저 살인을 저지르는 악순환을 분석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힘

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서 잘못의 근원을 지명하면서 밝히는 것입니다. 살인의 근원은 지속적으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가르침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악순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악을 대응하는 방법은 보복 또는 억지로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반드시 악순환의 고리는 더 커질 뿐입니다. 뺨을 돌려대고 겉옷까지 주고 십리를 가는 것은 모두가 비폭력적인 주도권을 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다섯 명령이 나타납니다. 이 명령들은 변화의 주도권들(Transforming Initiatives)로서 죄로부터 건지는 길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길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약 75개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주님께서는 단순한 내적인 동기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서 구원의 길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상적인 실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패턴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악을 악으로 대적하는 것도, 약자로서 패배하신 것도 아니라,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악의 세력을 이기는 것

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은 유대인적인 율법으로도, 헬라적인 이분법적으로도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창조적 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 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라는 뜻입니다.

오래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혈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 58:6-7)



네 번째 시간

산상수훈과 성도의 삶 2

마태복음 5:13-48

산상수훈은 성도들에게 충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마 6:9-13) 주님처럼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배우기를 힘써야 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에 선을 창조해야 합니다. 비록 형상이 죄로 인해 흐려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잔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란 창조적 선을 통하여 이웃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죄는 이기적 삶을 통하여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거짓된 삶이며 하나님의 소망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태초에 지어진 인간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개입하면서 이기주의가 나타나게

되었고 모든 관계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모든 관계가 상처를 받았고 고통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부르셨고 치료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들에게 세상의 불을 끄라는 소방수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도리어 방화범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복합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친구와 조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많은 전쟁들이 기독교에 의해서 일어났고 인종 차별도 기독교인들이 앞장섰고 경제 불평등이 일어난 일에도 기독교의 개입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금 인간을 구원하고 창조의 조력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창조적 친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면서 남을 해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보고픈 자를 먹이며, 집이 없는 자를 돌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불공정한 일을 버리며, 희생자를 보호하며, 타인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그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말로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

만 말보다 우리의 행동의 훨씬 더 소리가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당연히 일상적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대한 모금 운동에 참여한다할 지라도 일상적인 이웃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자칫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웃을 위해 창조적 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어 선을 창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

청지기의 삶

역대상 29:10-25

세 번째 주제로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로 청지기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말할 때 자기 소유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자본주의가 개신교의 일 윤리(work ethics)를 따랐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것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속화의 물결로 인해 기독교 신앙이 밀려나면서 우리의 삶은 이기주의에 기초한 자기 소유의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친구, 이웃, 자연과 같은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기독교 신앙은 다시금 청지기의 삶을 주장하며 이것만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할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
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
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
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
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청지기직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임을 알 수 있
습니다. 이 신앙은 다른 신앙과 조금도 갈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
려 다른 신앙과 반드시 함께 해야 하며 다른 신앙을 온전케 하는 실
천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신앙은 청지기 신앙과 함께 할
때 온전하게 되며, 구원 신앙도 청지기 신앙과 함께 할 때 온전케
됩니다.

연합 신문에 따르면 아이오와의 농업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
습니다. 농부가 일년동안 열심히 일했을 때 한 에이커에서 100부
셸의 옥수수를 생산키 위해서는 400만 파운드의 물, 6800파운드의
산소, 5200 파운드의 탄소, 160파운드의 Nitrogen, 125파운드의

Potassium, 75파운드의 yellow sulphur, 그리고 수 많은 다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비와 태양이 적절한 때에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농부의 몫은 어얼마나 됩니까? 5프로라고 합니다.

성도의 청지기직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인 됨을 선포합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이며 인간은 받아서 사용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Stewardship)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전체적 관점을 뜻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인간으로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응답을 뜻합니다. 단지 재정적인 면만 아니라 삶 전체 영역에 대한 신앙적 응답입니다. 이러한 청지기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청지기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지혜와 선한 판단과 은총으로 다스리시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주님도 이 신앙을 충실하게 따르십니다. 자신의 삶을 사역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청지기 신앙은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집을 바르게 경영할 청지기들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청지기일 뿐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청지기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이요 책임이 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청지기로서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가진 자의 자세는 청지기로서의 신실한의 고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땅에 묻거나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두 배로 남긴 것을 칭찬하신 것은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관리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소작농 비유의 경우도 이를 말합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도 소출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뜻을 거부하고 마지막엔 자기 소유로 삼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청지기직의 핵심은 우리의 동기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규칙을 지키므로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마음의 자세로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청지기 됴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청지기직

다음으로 우리는 교회의 청지기직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청지기직은 교회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으로서 구성원이나 모든 조직을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아버지의 소망과 헌신을 마음에 품고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걸쳐서 바울은 성도들이 가진 성령의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온전하게 운영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의 청지기로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엡 4:12,13). 성도들이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것은 두 가지 동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며 다른 하나는 다른 성도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로써 교회는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중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차원이며 다른 하나는 외적인 차원입니다. 내적인 차원은 성도를 향한 양육을 말하며 외적인 차원은 세상을 향한 사명을 말합니다. 물론 양육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위함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

돈과 청지기 신앙

마태복음 21 : 31-46

청지기 신앙에 관한 한 우리는 무엇보다 돈에 대해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인간 사회에서 항상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현금이라는 이름을 갖지만 돈의 비중은 사회와 못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이 개입되면 인간관계가 변하는 것은 돈이 가진 힘 때문입니다. 경제 공황이 다가오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버리고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돈이 갖는 무게 때문입니다. 돈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가치, 개인적 능력, 지위, 성공, 내적인 만족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항상 돈이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주된 도구였습니다.

주님도 돈이 갖는 영향력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돈에 대해선 전혀 무관심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그렇



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도 돈과 사람에 대해 어느 주제보다 많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경우 주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6분의 1이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비유의 3분의 1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어느 주제보다 돈을 바르게 사용함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재물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눅 16:19-31). 부자 농부의 경우(눅 12:15-21) 탐욕을 주의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로서는 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경제적인 삶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돈이 하나님과 대적할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돈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주인 됨을 고백하는 청지기의 헌신입니다. 십일

조는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성도들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며 나아가서는 교회가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칫 이러한 사실들은 율법적이 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 인해서 근본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억할 사실은 우리의 청지기 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라는 토대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토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십일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의무감이나 인색함과는 달라야 합니다. 신실함과 책임과 온전함이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충성된 청지기로서 아들 됨을 행사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수입의 얼마를 바쳐야하는데 주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자세를 가져야할 것입니다. 즉, 우리 가진 일부는 기도로 드리며, 일부는 관계로 드리며, 일부는 달란트로 드리며, 일부는 재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Memo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
럽게 하려 하시며 _ 고린도전서 1:27



Memo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_ 갈라디아서 6:9



Memo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_ 로마서 6:11



Memo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_ 잠언 16:9



Memo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_ 고린도전서 1:30



Memo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_ 고린도전서 1:18



12단계 개관

- 1단계 왜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밖에 없는가?
- 2단계 성경의 기본 I
- 3단계 성경의 기본 II
- 4단계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라! 성경의 파노라마
- 5단계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성경의 중심 주제들 I
- 6단계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성경의 중심 주제들 II
- 7단계 성경과 영성
- 8단계 성경과 삶의 과제 I
- 9단계 성경과 삶의 과제 II
- 10단계 성경과 사회 I
- 11단계 성경과 사회 II
- 12단계 성경과 타종교, 이단